

로봇시대 연 현대차그룹... 현대모비스, '핵심 축' 부상

로봇 산업이 실증 단계를 넘어 양산 경쟁으로 이동하면서, 경쟁의 무게중심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옮겨가고 있다. 정밀 구동과 내구성,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국면에서 현대차그룹 내 핵심 축으로 현대모비스가 급부상하고 있다.

◆차 부품 양산 기술, 로봇으로 이식
현대차그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를 통해 개발용과 연구용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로봇 시대 개막을 알렸다. 현대모비스는 그룹 로봇 전략의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핵심 계열사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경쟁력은 기존 자동차 부품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양산 노하우를 로봇 분야로 전이할 수 있는 구조적 강점이다.

전동 조향(EPS), 브레이크, 새시 제어 등 차량 움직임을 책임져 온 핵심 기술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관절을 움직이는 정밀 제어 액추에이터와 기술적으로 높은 유사성을 갖는다.

액추에이터는 제어 신호를 받아 물리적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로,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원가의 약 60~70%를 차지할 정도다. 고속 응답성과 내구성, 반복 신뢰성, 원가 경쟁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차량 조향과 제동 시스템을 대량 생산해 온 현대모비스는 이 영역에서 기술과 제조 경험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평가된다.

자동차 기술, 로봇으로 이식 액추에이터 경쟁력 본격 부각 양산·신뢰성에서 격차 확대 그룹 생태계 시너지 극대화 A/S 기반 투자 여력 뒷받침

현대모비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협력해 아틀라스에 적용될 바디 액추에이터를 공동 개발하며 설계와 엔지니어링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엄격한 품질 인증과 신뢰성 검증 경험은 로봇 하드웨어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력뿐 아니라 대량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체계가 필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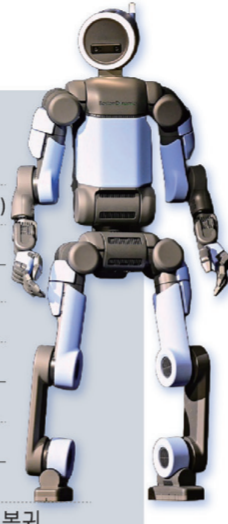
현대모비스는 50년 이상 글로벌 완성차를 대상으로 부품을 공급하며 자동차급 품질 기준을 충족해 왔다. 이런 양산 경험은 로봇 생산 단가를 낮추고 초기 시장 확산 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양산 경쟁 단계로 진입할수록 정밀 하드웨어와 제조 역량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며 "자동차 양산 DNA를 보유한 현대모비스는 현대차그룹 로봇 전략에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탄탄한 그룹 수요 기반으로 생태계 확장

현대차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

기동성 및 센서	자유도 (DoF)	56개 (대부분의 관절 완전 회전 가능)
	시각 센서	360도 카메라 (전 방향 인식 및 주변 감지)
	촉각 센서	사람과 유사한 크기의 손에 탑재
물리적 성능	가장 하중	최대 50kg (약 110파운드)
	작업 범위	최대 2.3m (약 7.5피트) 높이 도달 가능
	작동 온도	-20°C ~ 40°C (전 성능 발휘)
내구성 및 환경	관리 편의성	방수 기능 지원 (세척 가능)
	학습 능력	대부분의 작업을 1일 이내 숙달 가능
지능 및 운영	작업 범위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까지 수행
	에너지 관리	자가 충전소 이동 및 배터리 교체 후 즉시 복귀



자료: 현대차그룹

26.01.06 인제혜 기자 hokma@newsis.com

그룹 차원의 생태계 시너지도 강점이다.

현대차그룹은 로봇 기술의 공급자이자 동시에 대규모 수요자 역할을 맡는다. 제조 현장과 물류 현장은 로봇의 실증과 초기 불량 확보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른바 '제조-프릭션(개발-수요 거리 제거)' 구조를 통해 개발과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초기 시장 점유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를 시작으로 향후 센서, 제어기, 배터리 팩 등 로봇 핵심 구성품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 잠재력도 갖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서 검증된 모듈화 전략을 로봇 분야에 적용할 경우, 하드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화도 가능하다.

재무 체력 역시 로봇 시대를 뒷받침하는 요소다.

안정적인 사후관리(A/S) 부문 수익은 현대모비스의 대표적인 캐시카우로 꼽힌다. 연간 1조~2조원 수준의 잉여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로봇틱스와 AI 등 신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이어갈 여력이 있다.

이규식 현대모비스 사장은 "현대차그룹의 핵심 부품사로서 새로운 아키텍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차(SDV) 양산과 확대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며 "차량용 반도체와 로봇틱스 핵심 부품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시스

3월부터 반려동물 식당 출입 가능

영업자는 전용의자-케이지-목줄걸이 고정장치 등 하나 이상 구비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는 일반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5일 등의 처분 대상

오는 3월 부터 개 또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목줄 등을 풀어놓는 행위는 제한된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의 영업자는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걸이 고정장치, 별도의 전용공간 등에서 하나 이상을 구비해 둬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우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알레르기 등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손님들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비반려인 등은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등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은 이동이 금지됨을 고지하고 게시,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 금지장치를 구비,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관리 의무가 있다.

만약 반려동물 이동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5일 및 시설 개수명령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을 마련하고 종사자 교육도 실시한다"라고 권고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제한이 없으나, 영업장 공간을 고려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공간을 넉넉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음식을 제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포장된 음식물 등 이물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을 제공할 때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손님이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 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등에는 제외한다.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해 보관·사용한다.

다회용기를 반려동물용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 세척 등 관리 과정에서 손님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반려동물 동반 출입 대상은 사람과 동물, 동물 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의 치료, 예방접종 등이 비교적 잘 연구 및 관리된 개와 고양이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그 외 동물(돼지, 앵무새 등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뉴스시스

평년보다 20% 넘게 오른 딸기·감귤 "출하량 늘며 가격 안정세 전망"

딸기·감귤 소매가격이 평년보다 20% 넘게 오른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딸기와 감귤의 생육 상황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6일 기준 딸기 상(上)품 소매가격은 100g당 2796원으로, 전년 대비 15.1%, 평년 대비 22.9% 높은 수준이다.

같은 날 노지 감귤(M과) 소매가격은 10개당 4352원으로, 전년보다 12.7% 낮지만 평년보다는 23.6% 비싸게 형성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딸기 주산지는 기상 여건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작황이 양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1월 중순 이후에는 가격도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딸기는 화방(꽃대)별로 순차 생산되는 작물로, 화방 교체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

지난해 12월에는 기상 여건 호조로 일시적으로 출하량이 늘었다가 최근 화방 전환 시기가 앞당겨져 출하량이 감소했다. 2화방 출하가 본격화되는 1월 중순 이후에는 공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12월 딸기 출하량은 전년 대비 8.6% 증가했고, 도매가격과 소매가격도 전년보다 각각 6.4%, 3.3%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다만 연말 대형마트 할인행사와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12월 하순부터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귤 역시 생산 여건이 개선되며 공급



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노지감귤은 열과와 낙과 피해가 줄고 부패도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전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노지감귤 가격은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1월 출하량도 전

년 대비 3.7%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1월부터 비가림 감귤과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 출하가 본격화해 전체 감귤 공급 여건은 더욱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시스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기아 오토랜드광주, 3년 연속 50만대 생산 돌파

지난해 52만2268대, 전년 보다 1.7% 증가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3년 연속 50만대 자동차 생산을 돌파했다.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따르면 지난해 총생산대수는 내수 17만3662대, 수출 34만8606대 등 52만2268대로 전년도 51만3782대에 비해 약 1.7% 증가했다.

차종별 생산대수는 쏘울(9월 단산) 4만 2355대, 셀토스 15만9466대, 스포티지 22만5933대, EV5 1만4714대, 봉고트럭 7만 5770대, 기타(군수, 버스) 4030대다.

이는 기아 오토랜드 광주 역대 4번째 생산기록이며 지난 2023년부터 3년 연속

50만대 생산을 돌파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기아 관계자는 "지난해 오토랜드광주의 첫 전용전기차인 EV5의 성공적인 출시와 글로벌 시장 대표 인기차종인 스포티지, 셀토스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50만대 돌파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의 역대 생산 톱5는 2023년 54만1100대, 2014년 53만8896대, 2015년 53만3483대, 2025년 52만2268대, 2024년 51만3782대다.

/뉴스시스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